

지역총생산(GRP)에 관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高 汝 浩*

목 차

I. 서 론	IV. 지역총생산추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연구목적	1. 제도적 측면
2. 연구방법	2. 조직적 측면
3. 연구범위	3. 방법적 측면
II. 지역총생산의 이론적 배경	V. 지역총생산추계에 관한 몇 가지 개선 방안
1. 지역소득계정 목적 및 특성	1. 조사기관의 일원화 및 공표권 이입
2. 지역총생산과 유사개념	2. 조사시기의 조정
3. 지역총생산통계의 필요성	3. 조사방법의 개선
III. 지역총생산 추계 현황	4. 시·도통계조직의 기능 보장
1. 통계청	VI. 결 론
2. 내무부	

I.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지역단위 개발계획 수립의 지표가 되는 필수적 통계자료 가운데 하나인 지역총생산통계 조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안되어 운영하여오다 내무부에서 1967년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소득연보」를 1980년까지 대외에 공표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주민소득」통계마저도 대외공표를 중지하고 시·도를 통하여 추계작업을 실시, 현재 '91, '92 2개년분을 내부적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추계작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면서도 지역간 갈등조정 등 정치적 이유로 공표를 미루어오다 1993. 5월 그간의 추계결과 '85~'92(7개년) 일괄 발표하기에 이르

* 碩士學位課程 地方自治專攻 5學期

② 지역총생산(GRP)에 관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렸으나 시이성 있는 통계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실정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법상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각 시·도에서는 불가피하게 통계자료로서 신뢰도나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막연한 추정된 수치를 가져 운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93. 5월 통계청 공표이전)

지역총생산(G. R. P)은 지방자치 뿐만아니라 지역계획수립 지역경제의 지표 등 여러분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통계의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제주도 독자적으로 지역총생산 통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몇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국내의 저서·보고서 및 논문 등을 통하여 지역총생산 추계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추계조사 방식을 검토하며 또한 지역총생산 추계작업과 관련 도·시군 관계 공무원의 면접조사와 통계청의 관계 직원과의 전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는 현재 내무부와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총생산 추계작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주도의 지역내 총생산 추계에 관한 운영실태와 몇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도적·기술적·조직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 가. 지역총생산 및 이와 유사한 개념정리
- 나. 지역소득의 생성과정 및 추계작업의 이해
- 다. 통계청과 제주도 추계작업·운영실태와 문제점 파악
- 라. 시이성 있는 추계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지역총생산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소득계정의 목적 및 특성

한 나라의 경제활동을 국민경제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리적 공간적

으로 국민경제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을때는 지역경제라는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있어서 국민계정이 있듯이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계정의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자립적 경제권을 가진 지역은 생각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지역계정이 모든면에서 국민경제에 비하여 간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상호간의 이입·이출 거래는 국민계정에서는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지역계정에서는 각지역간 비교를 위해서 지역상호간의 이입·이출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소득을 국민계정과 같은 체계로 형성한다는 것은 이론상 통계상 많은 제약을 수반하면서도 지역계정 또는 지역소득을 추계하는 목적은 아래 세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관점에서 일정지역내 경제활동의 종합적인 산업구조 파악

둘째, 지역간 제화와 용역의 거래, 소득 등 지역간 경제활동의 이동이나 흐름파악

셋째, 지역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규모나 소득 수준 등 각 지역의 상대적 위치파악 등 이론적으로 위의 세가지 관점을 구분할 수 있지만 지역계정이 국민계정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계정 수립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즉, 국민계정에서는 생산 → 분배 → 지출의 형태로 순환하여 삼면등가의 원칙이 성립되지만 지역계정에서는 지역간 경제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바로 그 지역 주민에게 분배되거나 지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역소득계정에서는 조사와 접근이 용이한 생산적 측면에서 지역 소득을 추계하고 있는 것이다.

2. 지역총생산과 유사개념

1. 지역총생산의 정의(G. R. P)

G. R. P (Gross Regional Products : 지역총생산)란 일정한 지역내에서 1년동안 생산된 제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득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소득이 어느 지역에 귀착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역총생산은 종합적 소득 측정방법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의 경제활동의 질적인 면이나 삶의 질(QOL)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2. 유사한 개념들

가. G. N. P (Gross National Products : 국민총생산) : 일국의 국민들이 한해동안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해외부문 포함) 생산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나. G. D. P (Gross Domestic Products : 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한해동안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국경에 관계없이 일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산출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 $GNP = GDP + \text{해외부문}$

$GDP = GRP + \text{국방부문}$

다.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 GRDP) :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지역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GRP와는 다르게 “일정지역”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에 초점을 두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면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든 타지역인에 귀속하는 것이 관계없이 포함한다.

따라서 GRP와 GRDP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GRD = GRDP + \text{지역외 순수취요소소득(해당지역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요소소득 - 해당지역 외부로 지불하는 요소소득)}$$

결국 한 지역의 경제활동이 왕성하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지역총생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지역의 순수취요소 소득이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총생산 통계의 필요성

지역총생산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독자적 행·재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전체과정에서 지역총생산의 통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첫째 : 지역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후지역과 성장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비교·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성장유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총생산은 경제활동별(제조업·운수업 등) 성장률은 물론 지역경제에 있어서 경제활동별(예컨대 운수업이 기여한) 성장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아니라 그 지역의 생산구조(예 : 도매업 비중) 등 1, 2, 3차 산업에 걸친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 지역총생산은 각종 지역경제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일정 지역내에 공단을 조성한 후 제조업이 성장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개발정책의 성과파악 및 분석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지역총생산추계 현황

1. 통계청

통계청에서는 1982년부터 지역계정 개발에 착수 1983년부터 충청남·북도를 조사 대상으로 시험 추계한 것을 비롯, 관련 기초통계 개발(서비스업 통계조사, 지방재정, 수지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등)을 하고 UN의 권고하는 신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시·도단위별 기초자료를 집적시켜 추계하며 1993. 5월 1985~1991년도(7개년)분을 처음 공식공표 하였다.

제주도의 지역총생산 현황

년도별 구분		'85	'86	'87	'88	'89	'90	'91
경 상 가 격 (10억원)		736.2	826.1	996.6	1,175.9	1,475.8	1,663.7	2,008.2
불 변 가 격 (10억원)		736.2	791.9	881.1	900.0	1,126.3	1,143.9	1,260.6
증 가 율	경 상 (%)		12.2	20.6	18.0	25.5	12.7	25.5
	불 변 (%)		7.6	11.3	2.1	25.1	1.6	10.2
디플레이터 (85기준)		100	104.3	113.1	130.0	131.0	145.4	165.7
1인당 도내 총생산(천원)		1,494	1,664	1,995	2,339	2,919	3,274	4,091

자 료 : 통계청, 「도내총생산추계 결과」, 1993. 5

제주도의 산업구조 변화

산업별 \ 년도별	'85(A)	'91(B)	증감(B-A)
1 차 산업	41.1%	35.9%	-5.2% 포인트
2 차 산업	4.7%	5.6%	0.9% 포인트
3 차 산업	54.5%	58.5%	4.3% 포인트

자 료 : 통계청, 「도내총생산추계 결과」, 1993. 5

2. 내무부

통계청에서의 추계방법은 전문적 기술의 한계상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UN의 권장하는 신국민계정 방식에 따라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내무부에서 새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추계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으나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표가 안되고 있으며 자료활용이 안되고 있다.

가. 추계기준 : 매년 1. 1~12. 31

나. 추계분야(경제활동별 11개분야)

- ①농·림·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전기·가스·수도사업 ⑤건설업 ⑥운수·창고·통신업 ⑦도·소매·음식·숙박업 ⑧금융·보험·부동산 및 서비스업 ⑨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⑩정부서비스업 ⑪민간 비영리 서비스업

다. 추계내용 : 지역별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

라. 조사방법 :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병행)

①농업(작물생산업) 등의 부가가치 계산은 산출액(생산량×단가)에서 중간 투입액을 공제하여 구하고

예) 작물생산업의 부가가치 = 산출액 - 중간투입액

②건설업 등의 부가가치는 산출액(착공면적×단가)에 부가가치를 곱하여 산출

예) 건물건설 부가가치 = 산출액 × 부가가치율(한국은행 발표)

③정부서비스 생산자 등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항목을 합산하여 구하는 3가지 유형으로 대분할 수 있다.

IV. 지역총생산 추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과거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제하에서 지역개발계획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하향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통계 역시 통계법에 의하여 지역독자적 권한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어 공식화 되지 못하는 것이 관계자의 면접결과 느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무부 “안”을 중심으로 지역총생산 추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제도적·조직적·방법적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

① 조사의 이원적 운영

우리나라의 지역소득 추계는 한국은행 등에서 1959년부터 시작하여 분석 단위를 시·도 단위로 정하여 추계소득이 계속 되었으나 분석의 기초자료가 미미하여 1967년에 중단되고 내무부에서는 1967년부터 1980년까지 「주민소득년보」라는 통계집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공표는 중단되어 1980~1990년까지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어 오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는 1982년부터 지역계정 개발에 착수하여 그동안 4차례 걸쳐 전국 각 시도에 대해 도내총생산 추계의 시산작업을 진행하고 1993. 5월에야 1985~1991년도분의 도내 총생산 추계를 발표하였으며 공식통계 기관에서 조사 운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내무부 조사결과는 통계 숫치 불일치 등으로 공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시기 및 절차상의 운영

통계청에서는 각종 조사통계(예: 광공업통계조사 등)를 이용하여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를 산출 시산하는데 별문제가 없으나 내무부에서는 매년도마다 생산량을 조사하고 추계방식에 따라 부가가치를 산출하므로써 자료 취득이 곤란하고 또한 다른 통계목적에 위해 작성된 통계치를 원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른 기관 통계작성이 늦어질 경우는 최소 기준년도의 2년 뒤에야 작성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 공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추정치로 사용되던 숫치와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숫치에 혼선을 빚고 있다.

㉔ 지역총생산(GRP)에 관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도의 지역총생산 차이(경상가격)

단위 : 억원

구 분	'85	'86	'87	'88	'89	'90
제 주 도(추정)	8,231	9,537	10,666	12,067	13,942	17,185
통 계 청(공포)	7,362	8,261	9,966	11,759	14,758	16,637
차 이	869	1,276	700	308	816	548

자 료 : 1) 제주도, 「주요행정총합」, 1992
 2) 통계청, 「'85~'91 도내총생산」, 1993

2. 조직적 측면

① 내무부

내무부에서는 시도와 시·군을 통하여 조사되고 있으나 추계할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각 시도 통계담당관실에는 2~3명의 관계 직원과 시·군에 1~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뿐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요원이라해도 대부분 학력이 낮고 통계 업무담당경력이 낮아 1~2년 이내 인사이동으로 통계기법이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당시 자치단체별로 1인 정도를 교육하여 실시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 기반이 취약하다.

② 통계청

통계 전문인력을 갖춘 통계청에서는 통계조사국, 통계분석과 지역계정만을 담당하는 10여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각 지방통계사무소와 시·도 통계담당관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통계청 통계분석과 지역계정 담당사무관은 6여년을 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 방법적 측면

지역소득은 GNP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하는 신국민계정(SNA)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각각 추계할 수 있으나 통계청에서의 「도내 총생산」은

그중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으로써 해당 시도에서 산업별로 얼마만큼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는가를 추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매년 또는 2~3년 단위로 경제활동별(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통신업, 서비스업 등)로 통계조사를 실시 보고서를 이용하거나, 정부서비스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 매년 조사하여 추계자료를 활용되어지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다 하겠으나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시도별로 조사되는 방법은 다른 통계목적에 위해 작성된 통계치를 원용하여 사용되거나 다른 기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 하였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몇가지 내무부 조사방법에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선화물인 경우 경제활동이 일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귀속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부동산 관련 과세관계의 통계를 세무서 관할구역의 시·도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시·도단위별 추계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셋째, 농업관련 통계자료는 조사단위를 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도단위는 경지면적과 평균생산성을 고려하여 추계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

넷째, 각 시·도에서 추계된 주민소득은 내무부에서 수합되어 조정된 후 2년이 지나서야 발송되어 자치단체가 필요하는 최근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다섯째, 서비스산업관련 통계는 주로 과세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성격상 원래의 생산성보다 훨씬 낮게 추계되고 있다.

V. 지역총생산추계에 관한 몇가지 개선방안

지역총생산은 지역의 경제활동내지 경제적 성과를 표시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표시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삶의 질(QDL)을 그대로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 없다. 즉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이 반드시 GRP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지역보다 복지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GRP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효용이 증가되어 이러한 비용이 GRP가 계산되기 때문에 오염의 정도가 심한 지역은 주민복지가 증진되지 않아도 GRP가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지역간 경제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GRP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때 통계의 신뢰성이나 타당성 여하에 불문하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으로 기술상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언급을 못하지만 개략적인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조사기관의 일원화 및 공표권 위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본격 실시되어지는 시점에서 지역의 상향적 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을 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역 통계 기반이 취약하여 그 준비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통계업무 분야에서도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GRP추계업무도 통계청(통계분석과), 내무부(지역경제과)로 이원화되어 통계청은 일부는 시·도를 통하여 조사되고 내무부에서는 전 업무를 시·도통계조직을 이용 조사 되고 있다.

내무부에서는 '93년도부터 시·도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위임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그대로 직접 조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시·도와 통계청간에 조사숫치 차이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결과적으로 활용치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사업무를 시·도에 위임하므로써 조사기관 일원화와 공표권이 위임되도록 하고 통계청에서는 교육, 훈련, 기술 지도만을 담당하므로써 현지성 있게 GRP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조사시기의 조정

현재 조사되고 있는 방법에 의한 조사시기는 내무부에서 공표는 안되고 있으나 매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매년 조사추계는 하고 있으나 '93년도 처음 7년도분을 한번에 공표하였다. 공표가 늦은 것은 정치적 이유와 지역간의 갈등 문제 등 여러가지면에서 늦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볼때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가 되지 못하여

그다지 개발지표 설정에 유용하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GRP추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년 2~3년 격차 주기로 이루어지는 각종조사 통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조사기관의 일원화와 공표권의 시·도에 위임 되었을때는 조사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3년 또는 5년 단위로 조사추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다 하겠다. 물론 매년 조사시에는 간접통계조사 방식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 제일 적지만 신뢰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조사시기나 공표시기를 2~3년 또는 5년 단위로 조정하였을 때는 경비를 덜 드리면서 신뢰성 있는 통계작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3. 조사방법의 개선

현재 조사방법은 간접 또는 직접 조사방법이긴 하지만 양기관 도무 전수 조사 형태를 띠고 있고 신국민계정 체계(SNA)에 따라 추계한 것이나 실제 자료 이용면과 조사표상에 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조사기관의 다르고 특성에 따라 추계한 것이나 실제 자료 이용면과 조사표 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조사기관의 다르고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조사 기관이 일원 화 되어 공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운영될때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인구 구성을 기준으로해서 지역별로 표본을 결정한 다음 소득(개인소득)을 추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지역 단위에서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가 제공될 것이다.

4. 시·도 통계조직의 기능 보강

지방(시·도)의 통계조직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의 조직을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지역개발의 주민수요에 바탕을 둔 상향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 통계업 무 부서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시·도의 통계조직은 통계담당관 및 2개계 총 5~7명 정도이면서 통계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년수가 1~2년 밖에 안되고 있으며 또한 시·군을 보면 1개계(통계계)에 직원수는 2명에 불과하여 조직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며

⑫ 지역총생산(GRP)에 관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통계의 전문성이나 통계기법이나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에서의 통계수요는 점차 높아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통계조직 기능을 보강하며 또한 통계전문직을 기관 단위로 1~2명씩 확보하여야 신뢰성의 높은 통계를 공급하고 또한 효과적인 GRP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지금까지 지역총생산(G. R. P) 추계에 관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당한 기술적 문제가 뒤따르게 되므로 깊게 검토를 못하였다. 그러나 별로 접하지 아니하던 유사한 개념정리, 지역소득과 추계과정이해 운영실태를 접하게 되므로써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통계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시·도 통계조직의 기능 보강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GRP추계업무 일원화와 공표권을 시·도로 위임하여 시이성 있는 통계를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추계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통계기법을 시·도에 보급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최재선, 지역경제론, 법문사, 1991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총생산 추계에 관한 연구, 1991. 2
- 내무부, 지역내 총생산추계편람, 1992
- 통계청, 도내총생산, 1993
- 경상북도, '88 '89 지역총생산추계 지침서
- 제주도, 주요행정총람, 1992
- 한국개발연구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재검토, 1989. 9
-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3. 7
-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3. 8